

#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타이완 현대사와 기억의 장소\*

이영진 강원대학교 교수

본고는 현재 타이완 사회에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는 2·28사건과 백색테러 관련 기념관의 전시와 그 기억-서사를 검토하면서 공포의 문화가 지배했던 자신들의 근현대사를 기억·기념하고자 하는 타이완 사회의 기억-실천이 가진 함의를 고찰한 논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타이완 현대정치사의 최대 금기였던 2·28사건에 대한 공적 담론의 장이 열리면서, 과거사를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각종 기억-실천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된 타이완 사회 민주화 운동의 한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2·28기념관, 징메이·뤼다오 인권문화원구와 같은 타이완의 어둠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기념관은 테러, 나아가 죽음의 공간을 재현하면서, 이러한 테러와 공포에 맞서는 공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이러한 기억을 통해 억압된 과거의 진실을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개개인에게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대중적인 기억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억의 장들은 2·28사건과 뒤이은 백색테러를 지나간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현재의 타이완 사회에서 이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학살 및 테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직시보다는 인권과 문화의 기묘한 병치가 계속되는 타이완 사회의 기억의 장의 현주소는 지금 한국사회의 기억 실천을 되돌아보게 해 주는 거울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어야말로, 20세기 동아시아를 지배해 온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제어** 2·28사건, 백색테러, 공포의 문화, 기억-서사, 기억의 장

역사의 진짜 얼굴은 불현듯 등장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인식되는 순간에 번쩍하고는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사라지는 이미지로서만 과거를 붙잡을 수 있다. “진리는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고트프리트 켈러의 이 말은 역사주의자들이 추

\* 이 글은 2020년도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글은 전후 일본 사회문화 연구자로 동아시아 기억의 장이라는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필자가 타이완 현대사의 기억의 장에 대해 고찰한 시론적인 성격의 글이다. ‘지역’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를 평가해 주고, 또 풍부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역사의 이미지 속에 역사적 유물론이 이 이미지를 가로질러 구멍을 뚫는 지점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모든 이미지는 매 현재의 순간이 스스로를 그 이미지 안에서 의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그 매 순간의 순간과 더불어 사라질 위험이 있는, 복원할 수 없는 이미지다.

- 벤야민(W. Benjamin),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테제 5

## I. 타이완으로의 여행

타이완은 한국 근현대사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섬이다. 이 섬은 아시아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던 ‘제국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획득한 첫 번째 해외 식민지로서 한국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공유한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정부가 타이완으로 패퇴한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반공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우리에게서는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국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밀월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92년 당시 노태우 정권의 소위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공관 철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이 사태가 빚어낸 파장은 현재까지도 타이완 사회에 미묘한 감정적 앙금으로 남아 있다.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외교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199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 타이완 영화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허우샤오시엔(侯孝賢)의 <비정성시(悲情城市)>, 에드워드 양(楊德昌)의 <고령가소년살인사건(牯嶺街少年殺人事件)>과 같은 영화가 그것이다. 1990년대 초 대만 뉴웨이브 영화 붐과 함께 소개된 이 두 편의 영화는 비록 소수의 매니아 층에 한정되긴 했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sup>1</sup> 역시 여기에는 냉전의 균열과 함께 도래한 ‘아시아’라는 공간에

<sup>1</sup> 이는 1990년대 중후반 이래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담론들을 만들어 낸 연구자, 활동가들의 마흔한 구석에 깔려 있는 공통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학술교육정보시스템(Riss)에서 이 영화들을 검색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현재 <비정성시>라는 영화를 키워드로 했을

대한 새로운 상상, 이미지, 그리고 그 기억의 성좌의 한 중요한 지점으로 타이완이라는 장소성에 대한 '매혹',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해방, 그리고 민간인 학살과 군부독재, 그리고 민주화라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너무나 유사한 역사를 동시에 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프로이트가 지적한 '두려운 낯설음(Unheimlich)'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다.<sup>2</sup> <비정성시>의 무대 지우펀(九份)에서 내려다보이는 지룽(基隆) 반도의 음울한 잿빛 풍경이나, 고령가의 외성인 2세대 소년들의 무력감과 생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교차하는 표정과 몸짓은 90년대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에 빠져 있던 시네마 키드들에겐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950~1960년대로부터도, 그리고 뉴웨이브의 물결을 타고 영화가 제작된 198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한참의 세월이 흘러버린 현대 타이완 사회에서, 과거 영화 속의 이미지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한적한 외딴 어촌 마을이었던 지우펀은 타이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이젠 발 디딜 틈도 없는 관광의 메카가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렇듯 자본의 환등상(phantasmagoria)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에서 과거의 이미지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 즉 자연사를 재구축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때, 학위논문 6편, 국내학술지논문이 19편 검색되고 있고, <고령가소년살인사건>은 그보다 적지만 학위논문 1편, 국내학술지논문 2편이 검색된다. 아마 당시 발간되던 <키노>, <씨네 21> 등 영화 관련 잡지를 검색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타이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영화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up>2</sup> '두려운 낯설음'으로 번역되는 unheimlich는, 프로이트에 따르면, 공포감의 한 특이한 변종이다.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오래전부터 친숙했던 것이 억압기제에 의해 고통으로 변형되고, 이것이 다시 주체에게 엄습해 오는(귀환/회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운 감정을 프로이트는 unheimlich라 명명한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낯설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친숙함의 하위분류로서, 이때 접두사 un은 '억압의 표시'이다. 프로이트는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이 발생하는 조건들로서, 생각의 전능성, 욕망의 순간적인 실현, 숨어 있는 힘들, 죽은 자들의 돌아옴 등의 사례를 열거하는데, 단순히 이러한 조건들의 총족이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억압된>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들이 어떤 강한 인상에 의해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초극된> 원시적인 믿음들이 다시 새롭게 확인될 때 이러한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이상, 프로이트, 2004 참조).

다. 국민당 정부와 1987년 민주화 이후 뒤이은 민진당 정부, 시민사회 등, 여러 행위주체들에 의해 겹겹이 쌓인 기념-기억 이미지들, 그리고 대규모 관광 자본의 투여에 의해 만들어진 환등상까지 덧칠된, 바로 지금, 여기의 기억의 장소들 속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금 상기해 내고,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지금의 타이완 사회에서 기억의 장을 구축하는 이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난제이다. 여전히 제주 4·3사건에 제대로 된 ‘정명(正名)’을 부여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의 공식기념일이 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18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왜곡과 폄훼로 혼역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타이완 사회가 처한 곤경은 너무도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제사에서 언급했지만, 오래 전에 벤야민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는 획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로이 과거의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최적의 시간은 역사상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 벤야민은 “실제로 어떤 위협의 순간에 번득이는 어떤 기억을 제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다.”라고 푹푹 눌러쓰고 있다(벤야민, 2008). 이 비의적인 문장들에는 적들이 승리를 거둬두고 있는 ‘비상사태/예외상태’(벤야민, 2008)의 절박함과 함께, 죽은 자들도 적 앞에서 안전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역사유물론자로서의 개입의 의지가 묻어 나온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 타이완 근현대사의 암흑의 장소들에 세워지고 있는 2·28과 백색테러에 관련된 기념관들이다. 민주화와 과거청산 과정에서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는 기념관들은 그 건립과정에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고, 또 건립된 이후에는 많은 일반인들이 이 공간을 방문해 관람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기념관의 내러티브나 방향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기억투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2·28사건이라는 타이완 근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부의 역사를 기억·기록하는 대표적 장소인 타이베이에 있는 2개의 2·28기념관과, 가오슝의 시립역사박물관, 그리고 뒤이은 백색테러(white terror) 관련 정치범들을 수감했던 형무소 시설로,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인권박물관 프로젝트 아래 만들어진 2개의 기념 공간, 즉 징메이 인권문화원구와 튀다오 인

권문화원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후 계속해서 타이완 사회에 드리워진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타이완 사회 내부의 노력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백 년 동안의 공포”

마르케스는 저 유명한 작품, 『백 년 동안의 고독』을 통해,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를 비롯한 근현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고독(solitude)”이라는 메타포 속에 담아낸 바 있다. 여기서 고독이란 남아메리카의 ‘해방자’라 명명되었던 볼리바르(Simón Bolívar)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압도적으로 제도화된 식민·국가폭력에 맞서 언뜻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치러내야 했던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이 공유하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좌절의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리컨티넨탈리즘(tricontinentalism)이라는 문제설정에 공감한다면, 그 고독은 비단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제국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아시아의, 혹은 아프리카의 혁명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공통적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통 감정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 물음이야말로 식민주의,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 세계의 캄캄한 밤에 드리워진 ‘공포(horror)’의 실체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본의 시대에 이어 제국주의의 세기로 요약될 19세기가 저물어 가던 1899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출간된 콘래드(J. Conrad)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은 바로 그 캄캄한 밤의 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예언자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sup>3</sup>

공포, 그리고 암흑에 대한 이해는 본고의 분석대상인 타이완의 역사를 검토

<sup>3</sup>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이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사에서 갖는 위치는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이드(Said, 2005)와 바바(Bhabha, 2012)를 위시한 많은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자들이 『암흑의 핵심』을 중요한 참고문헌(reference)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식민주의 인류학에서 콘래드의 텍스트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Clifford(1988)을 참조할 것.

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990년대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의 대표 주자였던 에드워드 양의 영화서사를 분석하면서 한나라는 타이완을 ‘공포국가(horror state)’로 규정하며,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일제 식민의 기억과 2·28사건, 백색 공포 시기,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중국 대륙과의 무력 충돌의 결과 타이완인에게 도래한 ‘국가’라는 프레임은 폭력과 공포의 체제였다는 인식을 남겨 주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포 체제의 탄생이 타이완이라는 근대국가의 유년기와 소년기를 만들었다는 것, 즉 국민당정부하에서 근대국민국가가 선포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엄과 냉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의 상황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한나라, 2014: 11-12). 다시 말하면 ‘계엄령’이라는 초법적이고 강력한 제재, 즉 ‘예외 상태’, 혹은 ‘비상사태’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최장기인 38년 동안 만성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점,<sup>4</sup> 그리고 그 시기를 담아 내는 글과 영화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정서를 “공포상태”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슨(Jameson, 2007)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에드워드 양의 첫 번째 작품이자 의미심장한 제목을 가진 〈공포분자〉에 주목했던 것도 이러한 연구 관심에 기인한다.

물론 근현대 타이완 사회를 ‘공포’라는 프레임에서 파악하려는 시각은 영화비평 이외의 영역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의 동양사 연구자 1세대의 대표주자인 (고)민두기는 “대만사의 소묘”라는 글에서 40여 년에 이른 계엄령 하의 타이완의 강권 통치 실상을 ‘전제공포’ 통치로 규정했다(민두기, 2000: 219). 또한 타이완의 포스트식민주의 문화연구자 천팡싱은 오래전부터 타이완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백색공포와 그 사회에

<sup>4</sup> 타이완에서 계엄령이 발발한 것은 2·28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제스가 헌법의 총통 연임 제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고 총통에게 긴급 처분 권한을 부여한 「동원 감란시기임시조관」(1948. 5)을 포고하면서부터다. 이후, 「사회질서 유지와 공산당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1949. 5), 「반란분자 즉 공산당과 동조자를 처벌하기 위한 징치반란조례」(1949. 6), 「공산당 검거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며 상호감시와 밀고를 의무화한 「감란시기 검속비첩조례」(1950. 6)를 연이어 포고하면서 타이완사회는 계엄령 치하로 들어갔다. 특히 1948년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그 내용에 긴급조치 권한을 총통에게 부여하고 헌법이 규정한 총통임기 제한을 철폐하여 총통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행정원의 권력을 축소시켰다. 또한 이 임시조항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네 차례의 수정을 거치며 하나의 조항에서 11개의 조항으로 늘어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총통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한나라, 2014: 57).

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s)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교육 매체 등등)는 타이완 사회에 근본을 알 수 없는 당파문화를 형성하여 파시즘적 관철방식으로 타이완 현대성의 틀을 개조했다. 즉 한편으로 일본의 식민문화를 근절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외세를 사회 각층에 침투시켜 백색공포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하에 견잡을 수 없이 뒤틀리고 왜곡된 집단정신구조(psycho-structure)를 조성했던 것이다. 오늘날 타이완 사회 안의 의사소통 방식, 상호간의 질시와 소외, 이 모든 것이 박해받고 식민화된 의식들이 뒤틀린 결과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중상모략, 색깔론, 흑백논리, 인정주의, 암투 등의 파시스트 문화형식은 오늘날 타이완 사회(특히 백색공포 시대에 성장한 연령층)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야당이나 반체제 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장씨 일가가 건설한 중화 국족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억압과 탄압 일변도의 문화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타이완인의 의식 속에 있던 반항 심리를 축적하여 폭발시켰고 타이완 국족주의 속에 깃든 피식민·피압박 콤플렉스를 강화했다(천광성, 2003: 95).

‘계엄령’은 바로 그러한 공포의 통치성 아래 작동하는 체제다. “전면적으로 군사화된 통제 방식과 국민당 국가화, 사상통제와 감시·검열의 생활화, 국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 ‘학교’ 등과 같은 교육제도를 통한 총체적 통제(한나리, 2014: 16)”로 요약되는 타이완의 계엄령은 비단 타이완만이 아니라 탈식민지사회라면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치적 풍경이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혁명적 에너지를 철저히 탄압하고 억누르면서 만들어진 폭력적 장치들은 여순반란사건, 제주 4·3사건을 거치면서 국가제도 안에 수렴되고,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가공할 전쟁을 거치면서 완성된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사회 역시 1987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준-계엄 상태에 처해 있었고,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제주 4·3사건과 같은 과거의 국가폭력을 언급하는 것마저 억압하고 차단하는 공포 정치의 한 정점을 보여주었다(김득중, 2009).

한나리(2014)는 타이완사회가 느꼈던 정서는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순간적으

로 팽배해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아니라 만성적인 공포였다는 점에서, 37년의 계엄령 시기를 넘어, 그 전사(前史)인 일제시대 경찰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통치하의 전쟁, 국공내전, 2·28사건, 백색테러에 이르는 100년간의 타이완 역사를 공포상태로 전유함으로써, 그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절의 제목 그대로 타이완 사회를 지배해온 “백 년 동안의 공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백 년 동안의 공포”가 결코 과거형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도래와 함께 공안당국이 주도했던 ‘백색테러’는 종식을 고했지만, 가해 책임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두운 과거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듯이 평온한 일상을 가장하고 있는 현 타이완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공포국가’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sup>5</sup> 이런 상황 속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예외상태가 상례임을 가르쳐 준다(『역사철학체제』 08)”는 벤야민(W. Benjamin)의 통찰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사태에 상응하는 역사의 개념에 도달하는 것”, 즉 “진정한 예외상태를 도래시키는 것”이다(뢰비, 2017: 115).

이러한 벤야민의 역사유물론적 문제의식을 계승했을 때, 우리는 계엄령이 종식된 지 30여 년이 지난, 바로 지금 타이완 사회에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 한 사회를 지배하고 군

<sup>5</sup> 일본의 문학연구자인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는 2011년 3월 11일 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충격, 그리고 그 이후 어떠한 제대로 된 뒤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안전·안심이라는 허위정보만을 유통시키며 원전 재가동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호러국가’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공포(horror)란 ‘자신을 넘어선 외부에 대한 공포’인 테러(terror)에 반해, ‘자신을 포함한 내부에 대한 공포’이자 동시에 ‘사람들이 외부를 잃어버린 시대의 공포’이다. 그리고 이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내부’란 ‘해결불가능성에 의한 내적 파괴’를 일컫는 다(다카하시 도시오, 2012: 11-29). 그의 논의를 타이완의 사례에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백색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테러는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차단당하고 있는 타이완 사례는 여전히 호러국가다. 타이완의 작가 천잉전(陳映善)의 소설 『충효공원』에 실린 「밤안개」와 같은 작품은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수사하고 고문했던 전 공안직원이 민주화 이후 정신병을 앓는 과정을 ‘광인일기’와 같은 작품으로 그려 내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권력구조, 그리고 과거 그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내적 공포의 실체를 생생하게 그려 낸 수작이다.



림해왔던 공포의 경험과 기억을 민주화 이후 타이완 사회는 어떻게 재서사회하고 있는가. 타이완 사회는 자신의 근현대사에 깃들여 있는 공포의 흔적들을 지워내는데 과연 성공했는가. 본고에서는 타이베이에 위치한 2개의 2·28기념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 그리고 과거 백색테러 시기 정치범 형무소를 기념관으로 만든 징메이와 뤼다오의 인권문화원구라는 민주화 이후 타이완에 건립된 기억의 장소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그 내러티브, 즉 기억-서사가 갖는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검토해야 할 사건이 있다. 타이완 현대사의 출발이자, 최대의 금기의 영역이었던 2·28사건이다.

### III. 2·28사건이란?

1947년에 일어난 2·28사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타이완 사회가 처해 있던 여러 복합적이고 구조적 모순들이 일시에 폭발한 사건으로, 그 여파와 후유증까지 염두에 둔다면, 해방 이후 타이완의 현대사, 나아가 현재 타이완 사회의 정치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직후만 해도 타이완 사회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조국으로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륙의 국민당 정부가 파견한 행정장관 천이(陳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 정부가 일본 식민통치기 타이완사회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본성인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또 중국에서 온 관료들의 부패와 사병의 무질서, 치안 악화, 경제 악화로 인한 빈곤이 심해지면서 외성인, 특히 관료·사병·경찰에 대한 타이완 주민들의 반감은 점차 심해진다. 당시 타이완 사회에 회자되던 “개가 떠나니 돼지가 왔다(狗去豬來)”는 문구야말로 외성인을 대하는 타이완인들의 심정을 잘 반영해 주는 말이다. 현재까지 타이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인 ‘성적(省籍) 모순’의 핵심 역시 외성인에 비교해서 본성인들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차별이다.

이렇듯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47년 2월 27일 저녁 타이베이 시내에서 일반 판매가 금지된 담배를 몰래 팔던 한 여인에게 단속반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위 시민들에 대해 단속반원이 위협 발포를 하는 가운데 시

민 중 한 사람이 유탄에 맞고 사망하면서, 본토인들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게 커져 간다. 다음 날인 2월 28일 타이완성 정부 장관의 행정장관공서의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타이베이에서 시작된 봉기가 이후 타이완 사회 전체로 확산된 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2·28사건’이다. 수세에 몰린 통치당국은, 봉기 발발 직후에는 타이완 사회의 지식인과 유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2·28사건 처리위원회’의 정치개혁요구를 수용하는 뜻을 밝히며 유화책을 쓰지만, 당시 대륙에 있던 장제스(蔣介石)가 신속하게 타이완에 진압군을 파견하면서, 담배 판매 단속이라는 우연한 계기로 일어난 충돌은 무수한 타이완인들이 연루되어 학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7년 계엄령 해제 이전까지 이 사건은 타이완 사회의 최대 금기로서 망각을 강요당해 왔다. 2·28사건의 역사적 기억은 30년 이상 동안 봉인되었다. 이 기간 동안 타이완의 담론 공간에서 2·28사건에 관한 기술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 피해자나 연구자의 “있는 그대로의 말”은 공적인 장에서 이야기될 수 없었다. 앞서의 기사와 같이 그러한 문자 사료의 빈약함에는 사건에 대한 통치자의 역사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건은 공산당의 음모이며, 재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국민당 측의 강한 의사표명이기도 했다(何義麟, 2014: 141).

타이완 사회에서 2·28사건에 대한 역사적 금기가 깨지게 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후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그 계기는 흔히 타이완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이리다오(美麗島)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메이리다오』는 원래 타이완의 제2의 도시이자 남부에 위치한 가오슝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97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정치잡지다. 이 잡지를 발행하는 잡지사가 1979년 12월 10일 가오슝에서 주최한 세계인권의 날 기념집회에서 민중과 치안부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일컬어 ‘메이리다오사건’이라고 한다.

사건 직후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1980년대 타이완 민주화운동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이 바로 체포되면서 적어도 사건 직후에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구금된 당시 성의원(省議員) 린이슝(林義雄)이 군사재판을 위해 열린 첫 번째 조사

법정에 출석한 1980년 2월 28일, 메이리다오 잡지사 아래층 린 씨의 집에서는 린 씨의 모친과 갓 일곱 살이 된 두 쌍둥이 딸이 괴한에게 살해당하고, 장녀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월 28일에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당시 타이완인들에게 33년 전에 발생한 2·28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을, 그리고 메이리다오 사건에 대한 폭력적 진압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다.<sup>6</sup> 메이리다오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국제적 압력 때문에 일반 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또한 기존 당외 정치지도자들이 구금되면서 생긴 정치적 공백을 채운 새로운 세대의 당외 엘리트들이 기존 당외 운동의 '의회 선거노선'을 비판하면서 의회 밖 '장의 운동'이나, '대만민족주의 노선' 등 보다 급진적인 정치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김민환, 2012: 149).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금기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되면서 타이완 사회에서 민주화의 열기는 더욱 고양하게 된다.

타이완 사회 최대의 금기였던 2·28사건의 복권은 바로 이러한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다. 1986년 타이완 최초의 야당인 민진당이 결성되고, 그 행동강령 51조에 2·28사건의 진상을 공포하고, 그 날을 '화평일'(평화의 날)로 하며, 이를 통해 '성적 모순'을 해소할 것을 명문화하면서 2·28사건의 복권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1년 후인 1987년 인권축진회와 민진당의 주도로 결성된 '2·28화평일 축진회'는 2.28이라는 금기를 깨트리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1987. 7. 15) 40여 년에 걸친 장기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sup>6</sup> '린이슈 일가 살인사건'은 경찰의 엄중 감시하에 있던 자택 안에서 어떻게 범인이 백두대낮에 당당하게 침입할 수 있었는가, 왜 2·28사건의 발생과 같은 날이 범행일로 선정되었는가, 왜 민주화운동가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을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나아가 정치당국이 치안, 정보통제가 삼엄한 계엄령 체제하에 있으면서, 이 사건의 범인을 체포할 수 없었는가 등 당시 타이완 사회에서 많은 수수께끼를 낳았다. 물론 그 흑막이 정보기관이며, 실제 범행은 그들의 지시를 받은 극우세력, 혹은 폭력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후에 밝혀졌다. 왜냐하면 반정부활동가들의 살해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폭력사건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2·28사건의 기억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기억의 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재외 타이완인의 정치활동과도 연대하게 되고, 더욱 민주화 추진을 위한 커다란 힘의 원천이 되었다(何義麟, 2014: 193-194).

진상규명이나 기념일의 제정,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촉진회에 의한 제안은 점차 실현되어 갔다.

이렇듯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진상규명 움직임이 국가적 기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1988년 1월 장징궈(莊經國) 총통의 사망,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최초의 본토인 총통이 된 리덩후이(李登輝) 정권에 들어서면서이다. 리덩후이 총통의 지시에 의해 행정원 안에 2·28사건 특별위원회가 발족된 후, 1992년 2·28사건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에 기초해 1995년 2월 〈2·28사건 기념비〉가 완성된다. 그리고 뒤이어 〈2·28사건 처리 및 보상조례〉(1995. 3.)와 2·28을 기념일로 하는 법안(1997)이 가결되었다. 1995년의 기념비 제막식에서는 리덩후이 총통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이상 김민환, 2012: 150-157; 何義麟, 2014: 216-227 참조).

다음 절에서 다룰 타이베이의 2·28기념관 역시 이러한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건립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28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규명이나 기념활동의 진전은 항상 정부 측이 민중의 요구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발 양보하는 형태였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운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何義麟, 2014: 225). 또 하나 타이완 정치의 중심이자 중국정체성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타이베이에 건립된 2·28기념비의 상징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전부터 타이완 남부 가오슝과 핑둥(屏東) 등지에서는 2·28기념비가 건립되었고, 여러 시의회와 지방정부에 의해 기념의식과 기념비 건설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한지은, 2014: 117)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타이베이의 2·28기념관과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의 2·28 전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IV. 암흑의 현대사를 기억하는 장소들(1): 2·28사건과 기억의 장소

2·28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는 타이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타이완의 양대 도시인 타이베이와 가오슝에 위치한 3개의 기념관

에 주목하고자 한다. 2개의 기념관은 타이베이 시내에 있다. 하나는 2·28기념비가 있는 타이베이 2·28 기념공원 부지에 위치한 타이베이 2·28기념관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2·28 국가기념관이다. 나머지 1개의 기념관은 타이완 남부의 중심도시이자 민진당의 정치적 거점이기도 한 가오슝에 위치한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이다. 명칭 그대로 이 박물관은 2·28 사건의 기억을 단독으로 다루는 공간은 아니지만, 박물관 내 2·28 전시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타이베이의 2·28기념 전시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1. 타이베이 2·28기념관

타이베이 2·28기념관은 타이완 최초의 2·28사건 기념관으로, 1987년 계엄해제 이후 타이완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2·28사건에 대한 재평가운동의 흐름 속에서 2·28사건 50주년의 해인 1997년 2월 28일에 건립된 시립기념관이다. 2·28사건 당시 전체 타이완 사회에 2·28사건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내보냈던 구 타이베이시 방송국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시관은 “2·28사건의 역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수난자의 가족을 위로하며, 사랑과 용서의 힘을 통해 타이완인들에게 2·28사건의 암흑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공영하는 것을 촉진하고, 사회와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타이베이 2·28기념관 상설전 도록」)”고 그 건립 의도를 밝히고 있다.

전시는 크게 8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8 사건 당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과거 방송국에 설치된 마이크를 시작으로 ‘식민지기(日治期)’ 타이완의 자치운동(2구역), 1945년 8월 제국 일본의 몰락과 뒤이은 국민당군의 도래로 인한 타이완 사회의 급격한 변화(3구역), 2·28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서 국민당군과 타이완 사회의 갈등(4구역)까지가 2·28사건의 전사에 해당한다면, 2·28사건 발생(5구역), 사건의 전말(6구역), 그리고 2·28사건과 뒤이은 백색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의 수난을 다룬 ‘수난곡’(7구역)까지가 2·28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 ‘국제인권권의 숲’(8구역)은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도래 이

후의 타이완 사회에서 2·28사건과 인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이 기념관의 내러티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타이완에서 2·28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상당한 전시공간을 할애하여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구역의 전시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흐른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타이완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련의 문화·정치·사회운동이 전개되었고,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타이완의회 설치 청원’, 그리고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합법적 정당인 ‘타이완 민중당’ 결성 등과 같은 형태의 자치운동으로까지 나아갔음을 지적한다. 이는 타이완 사회가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적 자치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방 이후 그러한 열망이 다시 분출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전시는 1930년대 중반, 특히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공업화·남진기지화’라는 통치원칙 아래 자원 및 인적 수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타이완 사회가 1945년 8월 제국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국민당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타이완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관내에 전시된 국민당 청천백일기가 그려진 ‘환영광복타이완(歡迎光復臺灣)’이라는 휘장은 당시 타이완에 들어온 국민당군이 초기에는 해방군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관내에 전시된 당시의 신문들과 헤드라인들은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정치활동을 금지당해 온 타이완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에 들어온 국민당 정부는 국어(중국어) 교육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이완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좌절시킨다. 또한 술, 담배, 설탕산업 등 일제시기의 전매제도의 답습이나 국민정부 인사의 오직사건, 외성인 병사들의 횡포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상상의 조국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2·28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다룬 바 있다. 기념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8사건 발발 당시의 타이베이시의 모습과 시위대들의 동선, 그리고 국민당군과의 충돌지점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으며, 또 타이베이에서 시작된 2·28사건의 여파가 3월 이후 타이중(台中), 타이난(台南), 가오슝 등 타이완 전역으로 신속하게 퍼져 나가는 경과를 상

세히 기술한다. 특히 타이중의 '27의용대'와 같은 과거 일제시기 학도병 출신 타이완 젊은이들이 조직한 반국민당 무장단체의 활동에 대한 기술은 다른 전시관에서 찾기 어려운 전시이다. 나아가 타이완 엘리트들의 주도아래 구성된 2·28 사건처리위원회의 활동 및 당시 타이완의 행정장관이었던 천이의 배반, 3월 6일 가오슝에서 일어난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까지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2·28사건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전시야말로 이 기념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시기 타이완 사회의 혁신적 근대화 등 일본 통치시기를 긍정하는 식의 전시 내용이나 백색테러의 희생자 분류를 둘러싼 문제 등 2·28기념관의 전시를 둘러싸고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sup>7</sup>

## 2. 2·28국가기념관

2·28국가기념관은 재단법인 2·28사건 기념기금회가 주관하고 있는 시설로, 2007년에 건립되었지만 정식으로 개관된 것은 2011년이었다. 개관이 늦어진 것은 이 건축물이 가진 역사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원래 이 건축물은 1931년 타이완 교육회관 건물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타이완성 참의회와 타이완성 임시성의회로, 1959년 이후부터는 미국공보원(1959~1978)과 미국문화원(1979~2002)으로 사용되다가, 고적으로 분류되면서 복원공사를 거쳐 2011년 2·28국가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현재 이 건물은 2·28에 대한 전시 기능과 함께, 2·28사건의 처리 및 보상을 담당하는 '2·28사건 기금회'의 업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정나이웨이, 2018: 410-411). 건물 1층의 홀은 2·28사건의 역사를 알리는 강연과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공간이고, 2층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sup>7</sup> 2·28기념관의 전시 내용 일반을 둘러싸고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들을 정리한 탁월한 연구로 김민환(2012), 특히 243-255쪽을 참조할 것. 김민환(2012)에 따르면 2·28기념관의 2구역 전시에서 타이완의 다른 박물관들과는 달리, 이전 중국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타이완의 역사를 약사(略史)의 형식으로 배치한 것이나 일본 통치시기에 타이완의 근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내러티브, 또 7구역 백색테러 전시에서 백색테러 피해자들 중 공산주의자를 배제하는 식의 전시가 특히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고 한다.

전시관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1구역으로부터, 2·28사건의 발생(2구역), 사건의 시작과 끝(3구역), 유화책과 군대 배치(4구역), 진압과 엄중탄압(5구역), 희생에 당한 명령들(6구역), 수난자의 벽(7구역), 쉼루쩐(施儒珍)의 벽(8구역), 상처의 기억(9구역), 희생자 기록물의 탑(10구역), 이렇게 10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립 전시관이 일제시기부터의 타이완의 전체 역사 속에서 2·28사건의 발발 원인으로부터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편이라면, 국가기념관은 2·28사건과 뒤이은 배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의 성격상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발발부터 진압, 그리고 뒤이은 백색테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서사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기념관에서 눈에 띄는 전시를 지적한다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2·28사건 직후 타이완 사회를 휘몰아친 백색테러를 피하기 위해 정치범들이 숨어 지내던 밀실을 재현한 디오라마이다. 쉼루쩐이라는 한 실존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복원된, 집안 건물 내부에 가벽으로 가린 61cm<sup>2</sup>의 비좁은 공간은 여기서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숨어 지내야 했던 정치범의 고통과 함께, 당시 타이완 사회에 드리워진 폐색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

둘째로, 2·28사건의 희생자로 타이완인뿐만 아니라 당시 기류에 거주하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조선인과 일본인, 오키나와인 수난자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 제7구역 수난자의 벽이다. 조사 당시(2019. 2. 21) 현지에서 전시를 안내하던 정나이웨이 학예사 역시 이 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이방인들은 일제 강점기 타이완으로 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이완에 거주하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고 해설했다. 2019년 현재까지 오키나와와 한국(구조선) 출신의 2명의 외국인이 2·28사건의 피해자로 확정되어, 유족들이 타이완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sup>8</sup>

<sup>8</sup> 현재 타이완 정부로부터 2·28사건 외국인 수난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오키나와 요론파라 출신의 아오야마 에사키(青山惠先, 남, 1908년생), 그리고 한국 거문도 출신의 박순종(朴順宗, 남, 1911년생) 2명이다. 유족들의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수난자로 인정되고, 타이완 정부로부터 배상도 받았다. 고성만(2020)은 이러한 '인정'에 의해 지금까지 일국사적 범주 내에서만 가능해 왔던 배상 조례가 국적과 민족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배상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정부는 이들의 실종을 규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



셋째로, 2·28사건 희생자들과 백색테러 수난자들이 남긴 기록물과 배상 명부를 탐의 형식으로 재현한 10구역이다. 정나이웨이 학예사의 말에 따르면 1995년 〈2·28사건 처리 및 보상 조례〉에 근거해 2·28기금회가 설립된 이후, 배상 신청 업무, 희생자 확인 및 배상금 지불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2018년) 통과한 건수는 전체 (추정) 사망자 수인 18,000~20,000명의 10분의 1에 불과한 2,312건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학살이 은밀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명 서류가 없어 입증 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공식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난자들이 기록한 문서들이야말로 2·28과 백색테러 희생자들이 1995년부터 진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이상 정나이웨이, 2018: 410-413 ; 2019년 2월 21일 조사 당시 정나이웨이 학예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구성).

타이베이의 이상의 두 기념관이 2·28사건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억의 장이자, 이후 세대들에게 민주·인권·평화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이곳은 많은 현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장소이자, 수학여행 코스 등 비체험 세대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애매하게 처리되었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다시 말해, 2·28사건 직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타이완 지식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타이완 행정장관 천이의 배신,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일삼은 군인,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군대를 파견한 최고명령권자인 장제스의 책임에 대한 추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는 장제스의 사인이 들어간 '명령서'를 상징적으로 전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설은 부재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통한 정권 교체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국민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존속하고 있는 현 타이완 사회에서 2·28사건의 진상 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완 사이의 미해결 상태로 잔존해 온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 3.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高雄市立歷史博物館, 이하 '역사박물관')은 명칭이 말해 주는 대로 남부에 위치한, 타이완의 두 번째 도시 가오슝에 위치해 있다. 본래 과거 일본 통치 시기인 1939년부터 시청,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부터는 가오슝 시 정부청사로 사용되던 이 유서 깊은 역사적 건물은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1988년에 시립역사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역사박물관은 물론 2·28사건만을 기념하는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2·28 당시 가오슝 지역의 항쟁 거점이었고, 그 결과 3월 6일 계엄군에 의해 타이완 내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난 장소라는 역사성 때문에, 2·28사건은 상설 전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념관의 좌우측 출입구 위에 붙어 있는 〈2·28사건 당시 긴급피난문〉이라는 표지판은 이 건물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준다.

타이베이 두 전시관이 2·28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전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희생자에 대한 위로, 보상, 화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오슝의 역사박물관은 계엄군의 국가폭력, 즉 민간인 학살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상적인 전시는 3월 6일 시민들에 대한 정부 진압군의 무력진압을 생생하게 재현한 당시 시정부청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 전시다. 〈二二八·0306〉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2·28사건 65주년을 기념해 '2·28의 시대로 돌아가기', '가오슝의 2·28', '남부의 2·28'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2012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0306'이라는 숫자는 당시 가오슝 시정부청사였던 이 건물에 정부 진압군이 투입된 날짜를 의미한다. 안내문에는 이 전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2·28사건의 극장 유형의 디오라마 전시이며, 구 가오슝 시정부에서 일어난 무력진압의 정경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시 공간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총칼을 들고 청사로 진입하는 진압군의 모습과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시민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채 도망치는 시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이베이나 다른 지역의 2·28전시와 달리 이곳 역사박물관이 국가폭력을 상대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

에 대해서는 상세한 후속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오슝이 1980년대 타이완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던 메이리다오 사건의 중심지였다는 점, 그리고 이곳 가오슝이 오래전부터 본성인 거주 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인에 맞선 '성적 모순'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성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가오슝은 민진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이며, 그들에게 있어 2·28사건은 중국 본토에서 온 외성인이 본성인을 차별해 온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역사박물관의 일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2·28사건의 전체상을 담아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28사건의 전체 전개과정 속에서 남부의 중심으로서 가오슝이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 나아가 메이리다오 사건의 본거지이자, 타이완 독립파들의 거점인 가오슝이라는 도시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가오슝의 2·28, 즉 03·06사건의 관계성에 대한 전시까지 아울러 이루어질 때, 비로소 2·28사건이 갖는 전체상이 복원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역사박물관의 일부 전시실을 통해 이 전체 역사를 구현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아가 타이베이의 2·28기념관의 전시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화 이후에도 2·28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족군(族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왕푸창, 2008) 타이완 사회에서 그 전체상을 그려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 V. 암흑의 현대사를 기억하는 장소들(2): 백색테러와 기억의 장소

타이베이의 신베이(新北)시에 위치한 징메이(景美) 인권문화원구와 타이완 동부 타이둥(臺東)에서 약 33km 떨어진 뤼다오(綠島)에 위치한 뤼다오 인권문화원구는 모두 백색테러 시기 수용된 정치범들의 감옥을 2000년대 들어 새로이 인권 기념관으로 재정비해서 개장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2002년 뤼다오에 먼저 인권문화원구가 만들어졌고, 5년 후인 2007년 징메이에 인권문화원구가 조성되었다. 2011년에는 국가인권박물관 준비처도 만들어졌다. 이후 6년간

의 준비 작업을 거치면서 정치수난자의 물품이나 사료 정비, 그리고 인권교육추진 계획 작업이 완료되면서 2개의 원구는 백색테러 기념원구로 지정되었다. 나아가 2017년 10월에는 ‘국가인권박물관에 관한 조직법(초안)’이 제정, 입법원 심의를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13일 총통의 공포에 의해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박물관의 산하에는 종합기획팀, 전시교육팀, 소장품 연구 및 아카이브센터, 백색테러 루다오 기념원구관리센터, 백색테러 징메이 기념원구관리센터 등 5개의 조직이 있다(이상 「징메이 인권문화원구 팸플릿」 참조).

이 기념관들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이완 현대사를 어둡게 채색하는 또 하나의 사건인 백색테러(White Terror)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백색테러란 2·28사건 이후 사건 후의 ‘자수’ 기록을 이용해 다시 관련자들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테러를 일컫는다. 엄격한 주민감시체제 아래 국민당정부는 공산당 스파이 단속을 행했고, 그 결과, 1949년부터 1960년의 약 10년간 약 100건의 반란 그룹을 적발, 약 2,000명을 처형, 약 8,000명에게 무기징역부터 10년 전후의 형기를 언도했다(何義麟, 2014: 120-121).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유사한 백색테러 사건들이 말해 주듯,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9</sup> 타이완에서 일반적으로 정치범 사건은 6만 내지 7만 건에 이르고 처형된 숫자는 비밀처형과 복역 중 사망을 제외하고도 3,000명에서 8,000여 명,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이 1만여 명, 1960년부터 1987년까지의 행방불명자도 12만 6,875명으로, 피해자 전체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박강배, 2005: 240).

백색테러는 소위 ‘빨갱이 사냥’이 중심이었지만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 당사자나 타이완독립운동의 관계자에 대한, 그리고 선주민족의 자치요구에 대한 탄압도 모두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은 공산당원이라 지목된 사람들의 이름을 총살형 시행 전에 신문에 게재되거나 역 앞 게시판 등에 발표한 것

<sup>9</sup> 천잉전은 「밤안개」라는 소설에서 백색테러를 주도하던 한 기관에 근무하다 정신병에 걸린 한 남자의 일기를 통해 당시 타이완 사회에서 자행되었던 정치범 체포의 실태,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권력의 본질을 우울하게 그려낸 바 있다(陳映善, 2011). 역사학자 허이린 역시,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공산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900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00명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何義麟, 2014: 121).

으로, 이는 백색테러가 국민당 정부에 의한 '보여주기', 즉 일종의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何義麟, 2014: 137). 1950년대 백색테러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란보조우(藍博洲)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찰이나 특공요원의 안중에는 물론 법률 같은 것은 없었다. 수색영장도 필요 없었다. 야심한 밤이라도 민가에 들이닥쳐 사람을 잡아갔다. 만약 당사자를 잡지 못하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마음대로 연행하였다. 헌법이 동결된 '반란진압시기'였으므로 이들 경찰 특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서는 시간 내에는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기본인권마저 철저히 무시되었다. 체포된 사람들은 보밀국의 비밀 수감소에 옮겨졌다. 이외에 대부분은 형사경찰 총대 경찰본부 청도동로 보안사령부와 서본원사 정보처 등 비밀 경찰기관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 정치적 수난자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러한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대부분 죽어갔다(란보조우, 1998: 64).

이렇듯 2·28사건 직후부터 시작된 백색테러는 1987년의 계엄령 해제 전후까지 40여 년간 계속되어 타이완 사회에 엄청난 공포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상호 불신을 뿌리내리게 했다. 워다오, 그리고 이후의 징메이는 바로 당시 이러한 정치범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정식 재판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끌려온 감옥이었다.

## 1. 징메이 인권문화원구(景美人權文化園區)

1957년, 현재의 징메이 인권문화원구 부지에 최초로 들어선 시설은 군법 간부 육성을 위한 '군법학교'였다. 1967년 군법학교가 이전한 후, 이곳은 경비총사령부 군법처와 국방부법무국이 들어섰고, 1980년 국방부 군법국이 이전한 후에는 경비총사령부 군법처만이 남아 1991년까지 위치했다. 1980년 3월 18일부터 9일간에 걸쳐 진행된 '가오슝 메이리다오 사건'의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장소도 이곳이고, 1984년 당시 중화민국 총통이던 장징궈(蔣經國)를 비판한 책을 썼다는 이유로 책의 저자를 암살한, 소위 '장난(江南) 사건'의 지휘자인 정보국장 왕시링

(汪希箒)이 연금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sup>10</sup>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이곳은 그대로 남아 1992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비총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징메이 교도소는 국군 신덴 푸싱(復興) 주둔지가 되었다가 2007년에 들어서 전면 개장을 거쳐 징메이 인권문화원구가 설립된다(왕즈홍 외, 2017: 218).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잿빛의 건물이 징메이를 대표하는 거대한 건축물인 린아이루(仁愛樓)이다. 이곳은 당시 정치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억울한 옥중 생활을 겪었던 감옥으로, 수위실, 변호사 접견실, 의무실, 녹음실, 매점, 면회실, 식당, 세탁실, 취사실, 도서실들이 과거의 흔적 그대로 실물 전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현재 1층은 상설전시 공간으로, 2층 공간은 특별전으로 활용되는데, 이곳을 방문한 2019년 2월 당시는 백색테러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다. 한편 정치범들에 대한 조사와 심문이 이루어졌던 제1법정과 군사법정 역시 그대로 남아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1법정이 계엄령하의 계엄법정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면, 실제 1980년 군사법정은 당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대표적인 정치범들의 삶을 간략히 전시하고 있다.

타이완의 어두운 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기념공원이 조성된 것은 기억의 장소 구성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이곳은 기존의 감옥과 군사법정 시설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감되었던 백색테러 희생자들과 정치범들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고, 타이완의 지난 국민당 독재 통치하의 암흑의 현대사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

<sup>10</sup> ‘장난사건’이 발생한 해는 1984년으로 이 사건은 국민당 통치의 정통성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장난’은 미국 주재의 중국작가 헨리 리우(Henry Liu, 중국명 劉宜良)의 펜네임이다. 그가 쓴 장정귀의 전기가 국민당정부를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국민당정부는 정보기관을 통해 폭력단을 사용해서 그를 살해했다. 하지만 미군 조사기관이 개입해 국민당 정보기관이 살해에 가담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당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많은 수의 재외 타이완인들은 당시 조국 방문 중 경찰의 임의 연행 후 타이완대학에서 사체로 발견된 재미 교포 수학자 ‘첸웬첸(陳文成) 사건’ 및 장난 암살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국민당정부를 비판하며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해외 타이완인의 반격과 미국정부의 압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장정귀를 민주화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이상, 何義麟, 2014: 202-203 참조).

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메이 인권문화원구의 시도는 일제 강점기 하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 대한 전시가 빈약한 우리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sup>11</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메이 인권문화원구는 그 정치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장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타이완 인들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권과 문화의 기묘한 병치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2009년 문건회가 개최한 현대예술창작전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은 그러한 병치가 내포하는 갈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건의 계기는 앞서 언급한 '장난사건'의 주모자인 정보국장 왕시링 연금구역에 '벽 밖'이라는 이름의 예술작품이 설치되면서부터다. 이 작품은 백색으로 염색된 수만 개의 죽점과 비둘기를 형상화한 구조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왕시링이 연금된 장소는 교도소에 새로 지어진 훌륭한 독채였고, 그는 이 공간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며 수감되어 있다가 1991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비판 진영은 해당 작품이 장난 사건의 정치 암살범을 미화했다고 주장하며 공원과 행사 주최 측인 문건회에 항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급기야 해당 작품에 두 차례에 걸쳐 붉은 페인트를 덧칠함으로써 작품을 훼손하기에 이른다(이상 왕즈홍 외, 2017: 220-221).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타이완의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자, 과거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권과 문화(예술)라는 두 요소가

<sup>11</sup> 1998년 건립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감옥이자 1987년까지 감옥 시설로 사용되었던 서대문형무소를 리뉴얼한 형태로 개관했다는 점에서 징메이 인권문화원구와 유사한 설립 취지를 갖는다. 일제 강점기의 정치범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투옥되고 또 고문을 받았던 장소를 역사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시도는 분명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1945년 이후의 역사, 즉 해방 이후 형무소의 역사가 전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역사관의 가장 큰 한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 직후의 제주 4·3사건(1948, 70여 명), 국회프락치 사건(1949, 김약수 등 20명) 등에 연루된 인사들의 투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 당시의 진보당사건(1958, 조봉암 등 10명), 민족일보사건(1961, 조용수와 최백근 사형), 등 '반정부' 인사들이 다수 투옥(전경목, 2019: 315-316)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1908년부터 1987년까지 80년간 서대문형무소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와 이를 반대하는 자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감시와 처벌의 작동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ibid., 316)"는 전경목의 지적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공백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반쪽짜리' 역사관으로 만들고 있다.

언제든 충돌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 2. 백색공포 뤼다오 기념원구(白色恐怖綠島祇念園區)

뤼다오는 타이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과거 ‘카소지마(火燒島)’, 즉 불타 버린 섬이라 불리며, 일본 통치시대인 1911년부터 ‘부랑자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1948년 ‘뤼다오’로 이름이 바뀐 이후 이 섬에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보안사령부 신생훈도처 시설(新生訓導處施設 new life correction center)이 들어섰다. 1965년에 타이둥에 ‘타이위안감옥(泰源監獄)’이 준공되면서 뤼다오 신생훈도처에 수용된 정치범은 이곳으로 이관되지만, 1970년 2월에 교도소 내부 폭동, 즉 ‘타이위안사건(泰源事件)’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과거 뤼다오 신생훈도처 옆 부지에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형무소를 신설했다. 그것이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많은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악명 높은 국방부 뤼다오감훈감옥, 일명 ‘녹주산장(綠州山莊 oasis villa)’이다. 그런 점에서 뤼다오는 명실공히 백색테러 시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범들을 수감한 대표적인 장소였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국방부 경비총사령부에 예속되어 있던 ‘녹주산장’은 ‘군적(軍籍)’이 없는 평민 수감자를 수용 구치할 수 없게 되어 하나둘씩 이관되고, 이 공간은 폭력단원을 수감하는 시설로 바뀌면서 계속 감옥으로 사용되다가, 1998년 당시 스밍더(施明德)를 위시한 입법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곳을 보존하여 사료관을 창설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준비 작업을 거쳐 2002년 뤼다오 인권기념원구 기획안이 마련되었다. 그 기획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인권기념원구종합계획’으로 인권기념원구의 주제와 내용의 검토, 현존하는 건축물 기본 자료의 조사와 보존재 이용의 초보기획 설계, 인권기념원구의 공간배치, 경관, 자연생태 및 신축이 필요한 건축물의 초보적 기획 설계 등을 포괄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녹주산장사적관 및 기념관 기획’으로 국내외 사적관 또는 기념관 기획안 모집, 관련문헌 및 정보의 축적과 정리, 국내외 인권조례의 수집정리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후의 관리경영계획이 마련되어 ‘녹주산장’은 타이완 최초의 ‘감옥 박물관’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신생훈도처’는 명칭 그대로 정치범들을 수용해 ‘사상개조’라는 재교육방식을 채용한 강제노동 캠프다. 1951년 5월 타이완 각지에서 1,000여 명이 넘는 2·28 사건 관련 수감자들 이곳으로 끌려 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기념관은 이 신생훈도처를 미소 냉전시기 아시아의 가장 전형적인 ‘반공 정치범 강제수용소’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수감자들은 절해고도인 이곳 뒤편까지 끌려와서 ‘신생의 집(新生之家)’이라는 시설에 감금되었고, 이후 중대 조직에 편입되어 세뇌 및 가혹한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기념관에 전시된 수감자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5시 기상, 5시 반 대대 집합 및 점호 및 훈화 교육과 소조 토론, 그리고 7시 반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오전은 노동, 12시부터 13시 반까지 식사 및 휴식이 끝나면 다시 저녁까지 노동과 사상교육(세뇌교육), 저녁 7시에 점호를 마치면 간단한 자유 시간, 9시 반부터 소등 및 취침. 주된 노동은 풀베기, 해변의 돌을 운반해 벽을 쌓는 등의 중노동이었고, 또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나 가축을 기르고 공동부엌에서부터 세탁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은 수감자들의 몫이었다. 또한 형기가 끝나도 사상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총대로 보내어져 수년간 노역에 종사해야 했다. 1951년부터 1954년까지는 약 100여 명의 여성 정치범들로 이루어진 중대도 있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보다 훨씬 바깥출입의 제한을 받는 등의 통제가 심했다고 한다.

한편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문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문(革命之門)’이었다. 신생훈도처에서 정신교육(=세뇌)과 중노동을 함으로써 다시 태어나 ‘혁명’ 과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신생훈도처 옆에 위치한 야산 절벽에 큼지막하게 새겨진 禮 義 廉 恥와 같은 문자들, 그리고 시설을 병풍처럼 두른 야산의 벽면에 새겨진 忠 孝 仁 愛 信 義 平 和와 같은 한자들 역시, 정의의 이름으로 독재에 저항한 정치범들에게 유교적 덕목으로 훈화한다는 점에서 독재정권의 그로테스크한 통치성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혹한 노동과 엄혹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신생훈도처 수감자들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틈틈이 농작물을 기르거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또 일부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살려 지역주민들을 가르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도 허가받았다(2019. 8. 13. 蔡

○○ 씨[2·28사건 관련자로 체포. 신생훈도처 수감 인터뷰]. 기념관은 당시 신생훈도처 내 막사의 풍경을 디오라마로 재현하고 있는데(〈부자유 속의 자유〉), 취침 전에 주어지는 한 시간의 자유 시간 동안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를 켜거나, 장기, 트럼프 등의 오락, 혹은 독서를 하는 수감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972년에 개소한 ‘녹주산장’이라는 이름의 이 워다오 감훈감옥은 타이베이의 징메이(景美) 교도소(현 징메이 인권문화원구)와 비슷한 양식의 전형적인 폐쇄형 구조물로 수감자들에게는 억압과 공포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녹주산장의 내부시설인 옥사는 육각형의 중앙부분에서 방사형으로 4개 동이 뻗어 나와 있는 전형적인 벤딕식 판옵티콘 설계다. 내부는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크기가 서로 다른 면적의 감방이 52개 있다. 수감자에게 허용된 야외 시설은 감방 주변의 조그만 뜰 같은 공간이 전부다. 지금도 견재한 회백색의 건물들에는 “중화민국 만세”, “삼민주의 만세” 등 과거 국민당 정권 시절의 정치 슬로건들이 빨간색 글씨로 아로새겨져 있다. 특히 건물 서편에 은폐되어 있는 녹주산장의 독방은 수감자들에게 감옥 중의 감옥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워다오 감훈감옥에서 8년 6개월여에 걸친 수감생활을 했던 프레드 친(Fred Chin) 씨는 당시 수감자들이 모든 외부 활동이 금지된 채 감방 안에서 지내야 했다고 회고한다. 바깥 운동장에 나가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두 번, 약 15분에서 30분 사이였고, 수감자들 사이에 어떤 공개적 담화나 토론도 허락되지 않았다(2019. 8. 13. 프레드 친 씨와의 인터뷰). 그는 현재 회고록 출판을 준비 중이다.<sup>12</sup> 어쩌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하고 증언하는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타이완 현대사의 암흑의 심연의 정체를 규명하고, 이

<sup>12</sup> 프레드 친 씨는 원래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으로 1970년 타이완에 유학 왔다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만 주재 미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니던 중, 1971년 3월 갑자기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12년 동안 구금되었다. (하지만 그가 유출했다고 알려진 자료는 이미 1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기사였다고 한다) 4개월의 약식재판을 거쳐 1971년 7월 사형이 선고된 후 워다오 녹주산장으로 이송되었는데, 재판 당시의 공포까지 겹쳐 4년 반 동안 한 번도 감방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겪었다. 8년 반의 워다오 생활을 마치고, 다시 타이베이로 이동해 약 2년 동안 그는 출소 전 (정신)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그는 2년 반 동안 홀리스 생활을 전전하는 등 힘든 생활을 보내야 했다. 현재 그는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영어로 출간 준비 중이다.

를 통해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녹주산장 주위에는 과거 수용소를 에둘렀던 높은 벽과 그 벽들에 빨간 문자로 새겨진 “철저한 반공”,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고”, “멸공복국(滅共復國)” 등의 반공주의 정치 슬로건들만이 선명하게 남아 당시 처참한 감옥의 실상을 쓸쓸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적 드문 섬에 방치된 그 폐허의 존재감만으로 이 공간은 타이완의 암흑의 현대사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1987년 민주화 이후, 타이완 사회는 과거 자신들에게 드리워졌던 어둠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과거청산 작업을 수행해 왔다. 타이완 현대정치사의 최대 금기였던 2·28사건에 대한 공적 담론의 장이 열리고 타이베이 시내 한 가운데에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탑과 함께 사건의 전말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관들이 들어서고, 또 과거의 정치범 감옥들이 국가 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된 타이완 사회 민주화 운동의 한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자 타우직(M. Taussig)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피해자 담론을 분석하면서, 그 증언이 가해자가 만들어 내는 환각, 즉 공포의 문화(culture of terror)에 맞서 자신의 몸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실재가 손쉽게 잡힐 수 있는 죽음의 공간(a space of death)으로 인도해 내는 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Taussig, 1984: 494). 공포의 문화란 음벰베(Mbembe, 2003)가 개념화한 네크로폴리틱스(necropolitics)의 공간, 즉 “문답무용의 폭력으로써 주체화를 어둠 속에 붙잡아두려는 정치 공간”(도미야마 이치로, 2020: 132)을 지배하는 삶의 양식이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언어는 무력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언어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 공간에 남는 것은 폭력뿐이다. 폭력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폭력에 대치하는 말이 지니는 가능성의 임계”(도미야마 이치로, 2009: 27)를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우직에게 있어 증언이란 네크

로폴리틱스에 대항하는 삶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 증언이란 문답무용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서사(narrative)를 통해 테러의 문화를 매개하는 것이자, 테러에 반하는 말하기/글쓰기의 과정(Taussig, 1984: 494)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2·28기념관, 징메이·뤼다오 인권문화원구 등과 같은 시설은 타이완 국가건설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테러, 즉 학살과 죽음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타이완 사회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공포의 문화에 맞서 그 의미를 발신하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다. 동시에 이 공간은 2·28사건과 백색테러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고유명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을 통해 억압된 과거의 진실을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애도의 공간이자 동시에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기념·기억 공간들에서 2·28사건과 백색테러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듯하다. 그 결과 2·28사건, 백색테러와 같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들이 현재의 타이완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타이완의 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들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은, 비슷한 시기 전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정권교체의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억과 기념 작업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80년 오월광주’이며,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오월광주는 어찌됐건 한국사회 전체 기억의 장에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5·18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는 폄훼, 그리고 진압작전의 최종명령권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또한 1980년 광주 오월항쟁의 중심지였던 구 전남도청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관의 전시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아직 사건의 전체상을 어떻게 재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박경섭, 2018).

이러한 기억을 둘러싼 잡음들은 동시에 왜 우리 사회에서 ‘4·3사건’,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기 전국 각지에 자행된 무수한 민간인 학살,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각종 국가폭력과 의문사,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들을 지금 다시 언어화하고, 또 이를 기념하는 작업들이 왜 그토록 지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준다. 어쩌면 오월광주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사건의 해석을 둘러싼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한국 현대사에서 거의 유일한 사건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한 이 사건들에 '정명(正名)'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2·28사건을 기억의 장 속에 자리 매김하려는 타이완 사회의 노력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 건립되고 있는 많은 기억의 장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20세기 동아시아는 제국과 식민주의, 탈식민, 내전, 학살 등, 피로 얼룩진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작가 리양(李昉, 2014)은 신들림, 즉 '빙의'를 다룬 동명소설(『빙의(憑依)』)에서 “지나온 삶과 세대 전부”가, 아니 천 년의 세월을 걸쳐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청 제국, 일본, 국민당 정부의 통치를 받은 타이완 섬 자체가 일종의 빙의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진 바 있지만, 그 물음이 비단 타이완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동아시아 자체가 빙의된, 즉 귀신들린 땅인지도 모른다(이영진, 2017: 46-47). 2·28, 그리고 백색테러가 남긴 암흑의 심연과 마주하고자 하는 타이완 사회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기억 실천을 되돌아보게 해 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현재의 기억 실천이 갖는 여러 장애와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20세기 동아시아를 지배해 온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0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4일

## 참고문헌

### 자료

타이베이 2·28기념관 상설전 도록(타이베이시 정부문화국, 2018).

타이베이 2·28기념관 팸플릿.

2·28국가기념관 팸플릿.

징메이 인권문화원구 팸플릿.

백색공포 워다오 기념원구 팸플릿.

## 연구문헌

- 고성만. 2020. “배재에서 포용으로?: 대만 2.28사건의 외국인 ‘수난자’(受難者)를 사례로.” 『‘콧다’로 푸는 난민의 출현과 인식』, 2020년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국내학술대회 발표집.
-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문화사.
-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다카하시 도시오 저. 김재원 외 역. 2012. 『호러국가 일본: 무너져가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스피래터 이미지네이션』, 도서출판b.
- 도미야마 미치로 저. 심정명 역. 2020. 『시작의 얇: 프란츠 파농의 임상』, 문학과지성사.
- \_\_\_\_\_.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 『폭력의 예감』, 그린비.
- 란보조우 저. 김태국 역. 1998. “대만 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 42, 53-69.
- 뢰비, 미카엘 저. 양창렬 역. 2017. 『발터 벤야민: 화재 정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난장.
- 리양(李昴) 저. 2014. “귀신, 여자 귀신, 빙의.” 공선옥 외.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서는 근대』, 현실문화.
- 민두기. 2000. “대만사의 소묘: 그 민주화 역정.” 『동방학보』 109, 203-252.
- 바바, 호미 저. 나병철 역. 201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 박강배. 2005. “타이완, 사람들의 기억과 기념: 대만 2.28기념관.” 『민주주의와 인권』 5-2: 233-247.
- 박경섭. 2018.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5·18의 물신화와 성화(聖化)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18-4, 45-96.
- 벤야민, 발터 저. 최성만 역. 2008.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출판사.
- 사이드, 에드워드 저. 박홍규 역. 2005.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 왕즈홍 외. 광규한·한철민 외 역. 2017.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산지니.
- 왕푸창 저. 지은주 역. 2008. 『갈등의 정체성: 현대대만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출판.
- 이영진. 2017. “근대성과 유령: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의 정치를 넘어서기.”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도서출판 길.

- \_\_\_\_\_. 2018. “인민의 이미지를 붙잡기: 전후 일본의 민중사 연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8, 163-205.
- 전경목, 2019.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 정나이웨이. 2018. “타이완 2·28사건의 재조명 과정.” 『4·3과 역사』 18, 397-416.
- 제임슨, 프레드릭 저. 조성훈 역. 2007. 『지정학적 미학』. 현대미학사.
- 천광싱 저. 백지운 외 역. 2003. “왜 대화합은 불/가능한가: 식민과 냉전의 영향에 따른 성적(省籍) 문제의 정서구조.” 『제국의 눈』. 창비.
- 천잉전 저. 주재희 역. 2011. 『충효공원』. 문학과지성사.
- 프로이트, 지그문트 저. 정장진 역. 2004. “두려운 낯설음.” 『프로이트전집 14: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 한나리. 2014. “성장서사로서 에드워드 양 영화를 역사화하기: 근대국가 대만의 공포와 범죄.” 한예종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 한지은. 2014. “타이완에서 장소를 둘러싼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26-2, 104-125
- 何義麟. 2014. 『台灣現代史：二二八事件をめぐる歴史の再記憶』. 東京: 平凡社.
- Clifford, James. 1988. *The Predicament of Culture: Twentieth-Century Ethnography, Literature, and Art*. Harvard University Press.
- Lennon, John and Malcolm Foley.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New York: Cengage Learning Business Press.
- Mbembe, Achille. 2003.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Taussig, Michael. 1984. “Culture of Terror, Space of Death: Roser Casement’s Putumayo Report and the Explanation of Tortur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3), 467-497.

## Abstract

## Escaping from the Culture of Terror: Modern Taiwanese History and the Mnemonic Site

Yungji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emorial parks and halls have recently been built in Taiwan to commemorate the victims persecuted and killed in the 2.28 Incident and the white terror period. In this manuscript, I examine memory-practice that underlie the exhibits displayed in the memorial parks and halls that are intended to remember the sense of terror in the course of the modern history of Taiwan. The advent of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aiwan in 1987 introduced possible public discourse on the 2.28 incident, which had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nsitive topics in Taiwan's modern political history. The effort to develop various memory-practices in order to remember and commemorate the brutal past among civic groups since then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f Taiwan's social democratization movement. Recently built places of commemoration, such as the 2.28 Memorial Hall and the Jingmei and Ludao Human Rights and Cultural Center, are said to play multiple important roles, such as creating public narratives against terrorism and horror, handing down the narratives to young generations, and regenerating the suppressed truth of the past through these memories, which may provide the sense of healing for victims.

However, in my view, these mnemonic sites suffer a major limitation in identifying clear implications of the massacre to the present Taiwanese so-



ciety since many exhibits in the sites simply describe the 2.28 incident and subsequent white terror as unfortunat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distant past. This limitati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ast history has not been properly liquidated, such as the lack of the investigation and legal punishment of culprits who ordered massacres and white terrorism, despite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Due to this limitation, mnemonic sites for commemorating Taiwan's bitter past are characterized by a strange juxtaposition of human rights and culture continues rather than frank confrontation of dark political forces in its modern history.

In this regard, they may serve as a mirror for Koreans, who also recently struggled to engage in memory-practice in order to commemorate their own tragic events and white terrorism. I conclude by noting that the joint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mmemorating recent bitter historical events between Taiwanese and Korean civic societies appears to be the only way to properly bid farewell to the culture of terror that dominated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Keywords** | 2.28 Incident, white terror, culture of terror, memory-narrative, mnemonic site

